

# 儒教 喪禮服의 心理的 機能에 관한 研究

—A Study on Psychological Function of Mourning Ceremonial Dresses  
in Confucianism —

인하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조교수 趙又玄

Dept. of Clothing & Textile, In-ha Univ.  
Assistant Professor; CHO WOO HYUN

〈목 차〉

I. 緒言	III. 結言
II. 通過儀禮 段階別 喪禮服飾	참고문헌
1. 分離儀禮	
2. 轉移儀禮	
3. 統合儀禮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psychological functions of mourning dresses in Confucianism. By each step of A.V.Gennep's passage rites, the result of this thesis summarised as follow ;

In the first Separation rites, after calling the death's name three times the relatives for whom mourning is due, become dishevelled hair, bare feet and bare shoulder etc. In the second Transition rites, bereaved family has worn 5 class mourning dresses in deep grief. In the third Cooperation rites, gradually the living family goes through three year stages of changing mourning dresses to ordinary clothes. In Confucian funeral ceremony the deviation of clothing behavior in each mourning step sublimates bereaved person's sorrow into their internal security.

I. 緒言

儒教의 喪禮儀式은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조 5백여  
년간 그리고 중국에서는 2천여년간 거의 변함없이

행해져 왔다. 禮를 중시하는 유교사회는 인륜과 사  
회질서의 제도구 가운데 특히 인간의 마지막 通過儀  
禮인 喪禮를 중히 여겼다. 喪禮는 死亡에 대하여 哀  
悼를 표시하는 喪中儀禮로서의 諸行爲를 말하며 喪

禮의 전과정 중에 착용하는, 또는 착용시키는 복식을 통칭 喪服이라 할 수 있다.

荀子は 禮는 人之常情에서 始發하고 情에 맞도록 文飾하되 中道를 세워 절제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初終에서 禫祭의 전과정에 관련된 상복은 哀悼之情 즉 내면의 본질이 외적 유형의 服飾으로 표현되는 形式으로 볼 수 있다.

상례는 죽음을 위한 예식이나 禮의 主體는 결국 산사람에게 있으므로 生者의 心情과 의식의 절차는 상복을 통하여 객관적 합리성을 갖고 각 단계별로 입혀진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상례절차에 따른 복식의 착용과 그에 따른 心理的 변화를 A. Van Gennep의 通過儀禮 절차에 의거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Gennep은 통과의례의 유형을 分離儀禮, 轉移儀禮, 統合儀禮로 분류하였는데 居喪의 전기간에 걸쳐 상복을 통하여 生者가 死者의 죽음을 승화시키는 과정과, 그리고 생자와 사자간의 內面的 정신적 一體感을 어떻게 조성하며 平常的 안정상태로 환원되는지를 L. Pincus의 죽음에 관한 태도와도 또한 관련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 II. 通過儀禮 段階別 喪禮服飾

### 1. 分離儀禮

分離儀禮란 喪葬禮에 있어서, 初終에서 비롯되는 최초의 단계로 生者로부터 경계되어지는 의식이라 볼 수 있다. 즉 屍身을 밖으로 옮기는 다양한 節次들, 도구, 집, 보물과 死者의 所有物 불사르기, 死者의 아내나 노예, 혹은 좋아하는 動物을 죽이기, 씻기, 기름 바르기등 일반적인 靜化儀禮들과, 모든 종류의 禁忌 이외에도 物理的 分離過程이 있다. 여기에서는 무덤, 관, 빈소 등이 만들어지거나 使用된다. 또는 棺이나 무덤의 밀봉이 때때로 전체의식의 神聖한 종결이 된다.<sup>2)</sup>

이러한 喪禮儀式의 節次 가운데 喪服에 의한 분리 과정은 臨終時의 侍者들이 옷을 바꿔 입는 節次에서 亡者를 씻기고 옷을 갈아 입힌 후의 生者들의 衣服着用 모습까지를 이른다.

다만 各各의 儀禮를 적절하게 해석하여 정확히 分類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써, 때로는 하나의 儀禮가 여러가지 方式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또한 한 해석이 매우 다른 여러 儀禮에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 1) 臨終侍者改服

죽음에 임하는 사람은 心理的으로 다섯 段階의 過程을 거친다. 즉 처음에는 자신의 죽음에 衝激을 받고 拒否하며, 그 다음은 왜 내가 죽어야 하느냐고 憤怒하며, 조금이라도 生命을 연장해 보려고 타협을 시도하고 의기소침하는 등 우울증에 빠지다가, 마지막에는 죽음을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며 이 수용의 段階에서는 평온과 함께 敬虔함이 감돈다<sup>3)</sup>고 한다.

임종시에, 臨終侍者는 素服으로 갈아 입는데, 古禮에는 지위나 신분에 의한 의복으로, 朝鮮時代에는 사대부는 便服으로 부인은 정결한 새옷으로 改服한 바 모두 素服을 착용하였다. 여기에서 素服은 본디 전혀 加巧飾하지 않은 상태 즉 자연 그대로의 질박한 모습으로 文飾하지 않은 검허함을 外的으로 표현하는 엄숙하고 경건한 服色을 의미한다. 또한 生에 있어서나 죽음에 처하여서나 인간의 도리를 충실히 하고 일의 성패와 생사에 대해 모두 順天命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臨終侍者가 착용하는 無色無飾의 素服은 生者和 死者와의 無言의 분리가 시발되는 경계가 된다.

### 2) 復而易服

復은 죽은 사람이 平素에 입던 上衣를 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왼손으로 上衣의 깃을 잡고 오른손으로 허리部位를 잡고 북쪽을 향하여 “아무개 돌아오라(奉復)”하고 3번 외치는 招魂復魄의 의식이다.<sup>4)</sup> 이에 亡者가 입던 上衣는 亡者의 社會的 地位, 身分, 年齡, 性別 等の 區別이 가능한 의복이며, 官職이 있는 자는 公服 혹은 深衣를, 庶民은 深衣를 使用하고 深衣가 없을 때는 道袍, 直領으로 대신하며 婦人은 緣衣 혹은 大衣長裙으로 하였다.<sup>5)</sup>

儒教에서는 사람의 죽음을 魂과 魄의 分離라고 생각하는데 죽은 후 魂은 하늘로 올라가고 魄은 땅으

로 돌아간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復은 떠난 魂을 불러들여 魄에 歸依하도록 기원하는 行爲이다. 北쪽을 향해 외치는 것은 北方은 幽陰之方으로 鬼神에게 蘇生을 간절히 구하는 애절한 表現인 것이다. 또 招魂에 使用된 上衣는 死者위에 놓았다가 후에 靈座에 奉安하는데<sup>6)</sup> 이것은 魂이 衣服에 轉移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 復이란 儀式節次는 復生希求의 行爲이나 아직 亡者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단계이다.

復後의 易服儀式은 有服者인 妻, 子, 婦, 妾은 모두 冠을 벗고 上服을 입으며 被髮하고 나머지 有服者도 모두 화려한 장식을 제거한다.<sup>7)</sup> 魂을 불러도 蘇生의 여지가 없을 때는 喪主와 主婦를 세우고 옷을 갈아입는다. 남자는 深衣를 입되 걸자락을 잡아당겨 입고 안자락을 잡아올려 帶에 끼워 입는다. 婦人是 白長衣를 입고 맨발로 喪事를 행하며 管履가 없으면 空跣한다.<sup>8)</sup>

우선, 被髮은 머리를 풀어헤침을 말한다. 李紱는 死者의 奴僕도 被髮을 한다고 하였다. 유교문화권 내의 머리모양은 일반적으로 結髮하여 總을 만드는 상투형으로 總의 위치, 수, 크기에 따라 性別, 年齡, 身分 등이 區別되어 다양한 形態로 發達하였다. 머리를 길게 풀어헤치는 被髮은 平常的인 結髮에서 벗어나는 諸夷의 髮樣으로 간주되었다.

다음, 上服을 입는다 함은 家禮證解에는 男子는 深衣를 着用하는데 만일 없으면 白道袍, 直領, 單周衣 등으로 대신하고, 女子는 白長衣, 白長裙을 着用하는데 또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白衣 白裳으로 대신한다 하였다. 이것은 國制의 便服인 道袍, 直領으로 中國制인 深衣를 대신하여 復後의 易服으로 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禮記 士喪禮 注에는 易服時의 深衣의 着用方法은 上衽을 당겨 입는 것이라 하였고, 禮記 喪大記 注에는 前衽을 당겨 帶에 끼워 넣어 착용하는것이라 하였다. 또한 左袒을 하는데 袒은 한쪽 어깨를 드러내도록 입고 한쪽 소매를 팔에 끼워 입지 않는 方法으로 왼쪽 어깨 부분의 걸옷을 내려입는 것이다. 특히 肉袒은 맨어깨가 드러나도록 왼쪽 어깨 部分의 옷을 모두 내려 입는 것이다. 左袒, 右袒의 格式을 갖추어

父喪에는 左袒, 母喪에는 右袒을 하였다.<sup>9)</sup> 이와 같이 平常時의 衣服 着用方法을 벗어나 어깨를 드러내고, 안섶을 잡아당겨 帶에 끼우고 걸섶을 잡아 당겨 입고 있다.

다음, 空跣은 徒跣으로 喪履도 吉履도 신지 않은 맨발의 狀態를 의미한다. 신을 벗고 버선도 벗었는가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버선을 신었다면 이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나, 被髮, 袒 등으로 미루어 보아 士大夫, 庶人도 맨발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有服者인 妻, 子, 婦, 妾은 모두 화려한 장식을 제거한다 함은 錦繡, 紅紫, 珠翠 등을 제거함이다. 즉 화려한 色相의 무늬가 있는 비단류, 금, 은, 진주, 보석같은 비녀 반지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이상의 被髮, 袒, 徒跣 및 걸옷의 착용방법등은 禮를 실천하는 유교사회에서는 喪禮행위만의 특별한 의복행위가 된다.

### 3) 斂襲衣

復을 하고서도 소생하지 않으면 사자를 깨끗이 목욕시키고 손톱 발톱을 깎고 머리를 빗긴다. 다음 飯을 하고 새옷을 갈아입히는 의식을 小斂<sup>10)</sup>이라 하며 특히 의복을 갈아입히는 절차를 襲이라 한다. 襲을 행하면서 시신에 새로 갈아입히는 의복을 襲衣 또는 壽衣라 하는데, 古禮에는 士에는 3겹, 대부에게는 5겹, 제후에게는 7겹, 공에게는 9겹을, 天子에게는 12겹을 입혔다고 하였는바 이렇게 겹겹이 여러층으로 두르는 의미를 襲이라 하며 亡者에게 이웃들이 주는 시신을 위한 의복을 壽衣라 한다.<sup>11)</sup>

小斂 다음날 사자를 정성껏 싸매어 入棺을 하는 大斂의식을 행하는데 生時 혹은 斂時에 빠진 머리카락, 치아, 깎은 발톱, 손톱 등도 관 속에 넣는다.<sup>12)</sup> 小斂時에는 5냥이 있어 손, 발, 머리를 감싸며 이때 屍身에게 입히는 壽衣는 生前의 亡者의 사회적 지위, 신분, 연령, 성별 등이 표시되는 禮服으로, 관직이 있던 자는 官服을 갖춰 입히고, 그밖에는 대체로 흔레복을 착용시켰다. 대렴시에는 小衾, 大衾으로 屍身을 거의 겹겹이 싸서 입관하게 되는데, 일상시와 특별히 다른 의복행위는 양손을 싸는 주머니와 얼굴을

덮는 冥目 그리고 전신을 被服하는 大衾이다. 죽은 지 3일만에 大斂을 하는 이유는 대개 3가지로 첫째, 蘇生을 희구하는 孝者の 心情이며, 둘째 成服, 喪具 등의 준비 관계에 기인하며 셋째, 멀리 있는 親戚이 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다.<sup>13)</sup>

#### 4) 斂後生者易服

亡者에게 壽衣를 입혀 大衾으로 쓴 다음에는 生者들의 服飾도 달리 하는데 家禮에 의하면 括髮麻 免布 髻麻라 하였다. 男子 斬衰者는 袒, 括髮하고 齊衰以下에서 五世祖를 같이하는 者는 모두 別室에서 袒, 括髮하고 婦人은 別室에서 髻한다.

初終後에 착용한 素服은 成服時까지 改服하지 않으므로 素服은 그대로 착용하되 다만 袒한 모습위에 中衣(中單衣)와 行纏을 갖추어 입는다.

初終시에 被髮했던 것을 攝髮하는데 이를 括髮이라 하며, 括髮은 麻繩으로 또아리처럼 틀어서 묶는 髮樣이다. 括髮하는데 사용되는 布頭帶는 수파를 대용하였다.<sup>14)</sup>

수파는 總과 비슷한 것으로서 머리를 거두는데 사용하였으며 남자 斬衰者以下도 역시 사용하였다<sup>15)</sup> 하니 男女 모두 括髮한 後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男子 斬衰者가 括髮하는 것에 대하여 齊衰者 이하는 免하는 제도가 있다.

免은 麻布를 자르거나 꿰매서 목뒤에서부터 앞을 향하여 두른 후 이마위에서 교차시켜 고정한 다음 상투에 網巾 쓰듯 하는 것이다. 免布의 넓이는一寸이고 길이는 各者의 머리둘레에 따라 필요한 만큼 사용하며 絹은 服이 가벼운 者가 사용한다<sup>16)</sup> 하였다.

古禮 中國에서는 父母의 初喪時는 비녀나 머리쓰개를 드러내게 하고 小斂時에는 비녀나 머리쓰개를 벗고 素冠을 쓰고 小斂을 마치면 素冠을 벗는 것이니, 이때 머리에 쓰는 것이 없어서 麻免을 대신한다고 하였으며 司馬溫公은 頭巾을 쓰고 免을 그 위에 덧쓴다<sup>17)</sup> 하였다.

髻는 女子가 小斂 後에 하는 髮樣으로서 머리를 뒤로 묶어 이마쪽으로 둘러 위로 틀어 올리는 것인데 麻繩으로써 묶는다<sup>18)</sup> 髻는 북머리 또는 북상투라고도 하며, 정제된 모양이 아니라 급하게 틀어올린

머리형이 된다. 이때 사용하는 總과 비녀는 喪이 重할수록 더 거칠고 작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상의 服飾行爲 일체는 喪禮節次에 있어서 각 단계별로 生者의 心理의 상태를 반영하는 표현적 상징으로 볼 수 있다. 禮를 중시하는 유교사회에서는 日常時의 衣服을 통한 禮의 실천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可視的인 규범으로 의복에 대한 크기, 제작방법, 재료, 색 및 형태 등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신분, 지위, 성별, 연령 등을 차별적으로 규제하였다. 그러므로 大斂過程까지 이루어지는 복식행위는 日常服行爲와는 극히 다른 非合理的인 逸脫行動으로 볼 수 있다. 즉 被髮, 袒, 括髮, 免, 徒跣 등의 의복행위는 生者와 死者의 物理的인 차단과 分離儀禮가 진행되면서 가까웠던 이들의 죽음을 곧 수용할 수 없는 충격과 당황, 거부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충격으로 인한 생자의 또 다른 죽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탈의복행위에 의한 感情昇華의 한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신을 경배할 때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쓰는 것은 俗界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聖界에만 소속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斂襲행위도 이에 해당되는 차단과 분리의 상징이 된다고 하겠다.

## 2. 轉移儀禮

轉移儀禮는 한 狀態에서 다른 狀態로의 매우 重要한 變化이기 때문에 特別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成就될 수 없는 것이다.

喪禮에서 轉移期間은 우선 物理的으로 表現되어 死者가 起居하던 방, 현관 또는 다른 곳에 屍身을 그대로 놓아두거나, 아니면 棺에 넣어둔 狀態로 며칠 혹은 몇달 몇년을 지낸다. 轉移現像은 많은 다른 人間活動에서도 나타나는데 不活性의 地點에서는 두가지의 서로 반대되는 운동방향이 必然的으로 나타난다. 不活性이란 力學에서 中心을 벗어나 최소의 地點에 이르는 것으로 循環運動에서 潛在的으로만 존재하는 것을 가르킨다.<sup>19)</sup>

즉 새로운 狀態로의 轉移의 形態는 옛생활과 從前

의 생각을 拋棄하고 새로운 生活로 넘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喪禮中の 轉移儀禮는 大斂이 끝난 후 成服에서 弔喪素服까지의 단계로 이에따른 복식행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成服

成服은 大斂후 즉 死亡 四日만에 生者가 입는 正式服裝인 喪服이다. 亡者에 대한 蘇生の 希望을 拋棄하고 죽음을 認定하며 서서히 收容하는 段階가 된다.

生者는 死者의 죽음을 認定하고 받아들이는 한편 死者의 죽음이 자기의 罪逆의 탓이라는 심한 罪責感을 느끼게 된다. Pincus는 “특히 소중한 사람이 死亡했을 경우 이러한 罪責感은 더욱 크기 마련이다. 자기가 말한 것 또는 말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罪責感, 자기가 한 일 혹은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한 罪責感, 어떤 것은 根據가 있는 罪責感이지만 대개는 아무런 理性的 基礎가 없는 罪責感들이다. 우리에게 가장 苦痛과 混亂을 안겨주는 罪責感은 그 사람은 죽었지만 나는 살아있다고 느낄때의 罪責感인 것이다”<sup>20)</sup>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罪責感이 哀痛의 至極함으로 表現되며 이러한 애도의 도구가 바로 成服이 되는 것이다.

喪服은 어느 민족이건 모두 平常의 服裝과 다르며 일반적으로 저렴하고 평범한 織物의 자연색을 그대로 使用한다. 喪服의 起源에 대하여 民俗學者들은 대개 禳禍招福의 起源에서 緣由되었다고 하나 儒敎의 喪禮에 있어서는 喪服 起源의 그 意義에 대하여 倫理的 秩序의 意味를 부여한다. 즉 人間의 內心은 자연히 外貌로 나타나며 그 感情이 강할 때는 服飾에까지 미치게 되므로 그 哀悼의 表現이 喪服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哀悼之情의 구체적인 分化는 喪期別로 斬衰, 齊衰, 大功, 小功, 總麻의 五等級에 의하여 五服을 입는다. 五服중 가장 重服인 斬衰는 재료에 있어 加工을 하지 않은 苴麻를 사용하는데 凶하고 칙칙한 빛깔이 斬衰를 당한 사람의 얼굴도 悲痛으로 그렇기 때문이며 3년을 입는다. 齊衰服은 容貌가 닳처럼 회흑빛이

돌기에 總麻를 사용하며 1년을 입고, 大功은 애통하여 기쁨의 빛이 없고 풀이 죽은 것 같으며 9월을 입고, 小功은 5월을 입고, 總麻는 哀痛의 容貌만 있으면 된다고 하며 3월을 입는다. 또 斬衰는 三升, 齊衰는 四, 五, 六升, 大功은 七, 八, 九升, 小功은 十, 十一, 十二升 그리고 總麻는 十五升의 각각의 布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 親喪을 당하여 哀情의 淺深에 따라 喪服布에도 精粗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sup>21)</sup>

喪服 製作方法에 있어서도 衣旁과 下際를 꿰매지 않는데 이것 역시 슬픔으로 인하여 文飾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衰衣에 부착되는 衰, 負版, 辟領 등도 수질, 요질, 교대와 함께 生者의 슬픔의 忠實之心을 드러낸다.

### 2) 弔喪素服

한 사람의 죽음은 家族에게만 슬픔과 傷處를 주는 것이 아니라 親屬과 이웃에게도 슬픔을 안겨주므로 이들도 역시 喪禮를 통해 哀悼를 表하게 된다.

동네에 喪이 나면 방아를 짚어도 안되며 소리를 내어서도 안되고 거리에서는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sup>22)</sup> 그리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喪主를 위로하기 위하여 弔喪을 가는데 그때는 哀悼의 表現으로 素服 즉 白衣白帶를 하며 喪禮費用을 돕기위하여 塲에 따라 賻儀와 奠物을 갖고 간다.

孔子는 喪事는 不敢不勉이라 하여 무엇보다 至誠을 기울였다. 제자 顏淵이 죽었을때 弔喪을 가서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모르며 또 전에 기숙했던 집주인이 죽었을 때는 눈물로 弔喪한 후 타고 다니던 馬車까지도 팔아 賻儀 했으며 평소에도 喪服을 입은 사람을 만나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哀悼의 情을 표하였다<sup>23)</sup> 한다.

弔喪者의 素服은 喪主와 哀情의 統一感과 心理的 慰安感을 부여하며 슬픔의 表現과 發散에 도움을 준다. 孔子는 臨喪하여 哀情이 없다면 이보다 더 不仁한 바는 없을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喪事가 나도 弔喪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居喪中에는 弔喪하지 아니하며, 自殺한 者, 壓死한 者, 溺死한 者의 경우도 弔喪하지 아니한다. 父母의 遺體인 生命을 保全하지 못하여 至死함으로써 孝를

저버림은 사람의 도리는 물론이러니와 天理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는 儒敎가 生命을 尊重하며 그 敬畏와 保全是 生命을 傳授해준 父母와 先祖에 대한 가장 큰 孝道이고 나아가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보기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有服者의 成服과 弔喪者의 素服은 모두 亡者의 죽음을 확실히 인정하며 수용하는, 한 심리적 갈등에서 다른 심리적 상황으로의 전이과정을 주도하는 매개체가 된다.

### 3. 統合儀禮

統合儀禮는 復活과 靈魂再生意味로 나타나며, 스스로 혹은 다른사람의 힘으로 方向을 바꾸어서 저승으로부터 이승으로 우리의, 혹은 나의 가운데로 再現하는 過程이다. 그러므로 生者의 전체사회 혹은 한정된 집단의 再結屬과 관련하여 葬禮儀式은 終結되게 마련이다.<sup>24)</sup>

成服中의 居喪生活은 喪主와 死者가 特別한 集團을 이루며, 死者와 生者世界의 中間에 위치하게 된다. 그리고 生者가 얼마나 빨리 이 集團에서 벗어나느냐 하는 것은 각각 喪期와 一致하게 되는데, 이러한 內面化 過程을 Gennep의 統合儀禮에 의거하여 小祥부터 吉祭에 이르는 脫喪範圍로 看做할 수 있다. 즉 小祥服인 練服에서 점차 大祥服인 祥服, 禫服 그리고 吉服으로의 순서로 행해지는 脫服行爲 過程을 말한다.

#### 1) 小祥服

死別로 인한 傷處는 몸의 傷處와 같이 상당한 기간을 通하여 차차 아물게 되며 季節의 變化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四時가 지나 一期가 되어 天道도 一變하면, 마음도 安定되고 哀痛之心도 많이 감소하여 소화되었으므로, 이 상례절차를 小祥이라 한다.<sup>25)</sup> 小祥의 祥字는 福의 意味이며 許慎의 說文에 의하면 祥은 또 善의 意味이니 小善한 服飾을 가함을 意味하기도 한다.

小祥에는 喪服을 벗고 練服을 입으며 喪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衰를 벗으며, 男子인 경우 수질을

女子인 경우에는 腰絰을 벗고 대신 葛絰을 着用한다. 小祥은 윤달을 계산할 것 없이 十三月만에 지내는데 날을 받아서 지내는 것이 原則이나 보통 忌日에 지낸다. 父生存時의 母喪은 十一月만에 練祭를 지내며, 十三月만에 小祥을 지낸다. 小祥服을 練服이라 함은 冠, 衰衣, 衰裳을 조금 精細한 練布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練服을 功衰라고도 하며, 이것은 練服이 成服時의 大功服의 升數와 일치함에 의한 것이다. 練服의 升數는 斬衰服에서 衰服이 七升布, 冠은 八升布, 齊衰服에서 衰服이 八升布, 冠은 九升布의 熟布를 使用하고 그 制度는 成服때와 같다.<sup>26)</sup>

小祥時에는 밑단을 縫製하지 않았던 斬衰衣裳을 縫한다는 說이 있으나, 士儀에는 三年間 縫緝하지 않는 것을 原則으로 하였다. 小祥의 節次는 神主를 靈座에 모신 후 哭을 하고서 모든 服人은 나가서 각기 練服으로 갈아 입는데 期年服을 吉服으로 갈아입고 들어와 祭祀를 계속 지낸다.

#### 2) 大祥服

四季節이 一循하여 小祥을 맞아도 生者의 哀情이 완전히 醇化되지는 않는다. 死別로 인한 傷處를 治癒하고 正常的인 生活로 還元되는데 必要한 哀悼期間은 生者와 死者와의 親疎關係, 周圍環境, 哀悼者의 性格 등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므로 一律적으로 規定하기는 어렵지만 客觀적으로 보아 小祥後 周年이 되는 大祥이 지나서야 心理的 安定을 찾는다고 하겠다.

禮記 檀弓에는 大祥에 縞冠을 쓴다 하였고 問傳에는 素縞麻衣를 着用한다 하였다. 여기서 縞의 字意는 純白을 意味하는 것이니 大祥의 服裝은 모두 素色으로 되는 것이다.

大祥의 節次는 小祥과 같으나 素服을 입고 지내며 祭祀가 끝나면 神主를 祠堂에 모시게 되며 綬을 없애고 喪杖도 꺾어서 깨끗한 곳에 버린다. 大祥後에는 哀情의 表現인 喪服을 벗어 가난한 사람이나 또는 墓지기에게 주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喪服을 싫어하고 忌避하므로 대부분 태워 버렸다.

이렇게 脫喪服을 하여도 哀情이 醇化되어 心理的 安定을 되찾아 死者와의 圓만한 關係를 樹立하기에

는 人之常情이 차마 許諾하지 않으므로 漸進的으로 吉禮로 넘어가게 된다. 大祥服의 구조로 남자는 白布笠, 白布網巾, 白布直領, 白布帶, 白靴를 착용하였고 婦人도 또한 白衣白裳을 着用하였으며 國恤服制에서도 마찬가지로 白笠, 白靴를 착용하였다.<sup>27)</sup>

### 3. 禫服

담복은 大祥 後 한달을 걸러 두달만에 지내는 담제에 着用하는 服飾이다. 담제는 初終에서부터 二十七月만에 지내는 除服祭로 담이란 澹澹然하여 平安하다는 뜻이다 이것은 모든 喪禮를 끝내고 平常의 生活로 돌아가는 儀禮가 된다.

담제를 지내는 節次는 大祥時와 같으나 三獻時에는 哭을 하지않고 辭神할때만 哭을 한다. 神主를 祠堂에 모실때는 哭하지 않는다. 또 담복으로 갈아입고 지내는데 男子는 黻紗帽와 黻布衫을 입으며 黻布帶, 白靴를 着用하고 특히 婦人의 경우는 玉色(淡青色)을 사용하였다. 다만 金繡나 수놓은 붉은 비단은 입지 않는다.<sup>28)</sup> 黻의 字意는 說文에 淺青黑이라 했고, 淺黑은 灰色이 되며 淺青은 玉色이 되니, 前者는 男子가 後者는 女子가 使用하였다.

朱子家禮에는 禫祭로써 모든 喪禮는 끝나고, 平常의 生活로 돌아간다고 되어있으나, 喪禮備要와 四禮便覽에는 禫祭後 吉祭를 지내고서 平常의 生活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또한 孝子의 不忍之心과 悲慕之心으로 인하여 급하게 平常의 生活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여 士家에 따라 禮論을 다르게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朝鮮에는 淺黑 즉 灰色이 常用服色이었으므로 朱子의 說에 따라 祭服과 忌祭服이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니 또한 禫服이 점차 吉服으로 轉移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死別을 당한 喪主는 점차 마음이 安定되고, 緊張, 挫折, 苦痛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된다. 이러한 段階가 바로 五服의 段階別 喪服期間에 해당되며 哀悼感情의 安定化는 死者가 어떤 형태로든지 꼭 자기 곁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段階로 바뀐다.

죽은이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항상

나와 함께 있다고 여길때에 喪禮는 완성되며, 결국 죽은이를 生者의 중심에 內在化시키는 過程 즉 內面의 一部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喪禮의 가장 중요한 統合儀禮로 喪禮의 모든 節次는 종료되고 平常時의 吉服으로 還元된다.

### Ⅲ. 結 言

儒教의 喪禮 全過程을 주로 服飾行爲를 中心으로 考察해본 결과 각 段階別로 衝擊과 當喪, 悲痛 또는 正當회복등의 심리적 상태가 逸脫的인 服飾行爲 또는 材料의 질감, 色, 升數로, 나아가 製作方法 및 구조에 이르기까지 지극히 精緻하고도 的確하게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유교의 상례복은 臨終에서 吉祭에 이르는 喪禮의 全過程을 통하여 四節變化의 宇宙調에 따라, 生者에게 五服의 等級에 의하여 居喪期間의 段階別로 哀悼之情을 內面으로 昇華시켜, 결국 心理的 安定 및 正當회복의 기여에 表現的 道具의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분리단계에서 특히 復後易服인 被髮, 徒跣, 免, 袒 등의 祭儀服飾行爲는 日常服行爲에 逆行하는, 죽음을 인식하는 첫단계로, 生과 死의 分離儀禮로서 衝擊과 拒否의 表現이며

둘째, 전이단계에 있어서 成服後의 差別等級의 五服의 着用은 哀悼之情을 醇化시키는 轉移儀禮의 過程으로, 五服을 着用한 居喪生活는 결국 生者의 心理的 安定性과 人間本然의 原初的 感情으로 回復시키려는, 한 狀態에서 다른 狀態로의 變化를 수반케 하며

셋째, 통합단계로 祥服을 착용한 이후로 담복을 거쳐 吉服에 이르기까지가 死者를 生者의 內面에 일치시키려는 統合儀禮의 段階로 脫喪服하는 過程인 것이다.

이는 또한 通過儀禮의 機能을 變化에 대한 새로운 보완의식으로 본 Gennep의 分離나, 哀悼의 段階를 심리적인 變化나 安定性을 중심으로 나누어 본 Pincus의 分類에 適用하여도 전혀 무리없이 일치하는 것이다.

유교의 상례는 이상과 같이 그 절차별로 分離, 轉移, 統合의 각 段階別 服飾을 통하여 表現된다. 初終에서 吉祭에 이르러는 平常服으로 환원하며 死者와 교통하고 死者를 內在化함으로써 一體感을 느낄뿐 아니라 가족 공동체와의 일치감과 친교를 이루면서 모든 상례는 완성되는 것이다. 또한 死者를 內在化한 生者は 死者의 생까지도 持續시켜야 하므로 자신의 삶을 진솔하고 성실하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따라서 喪禮 전과정을 통한 喪服의 심리적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다.

현대 산업사회는 전통사회의 德目이나 인간의 내면적인 精神世界를 경시하고 도외시하여 지나치게 簡素화된 상장례와 喪服 고유의 기능성이 사라져 버린 오늘날의 喪禮는 실로 喪主의 哀情을 段階적으로 수용할 수 없어 많은 갈등과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시킨다고 본다. 따라서, 소멸해 가는 고유의 전통복식을 재조명하여 시류에 따라 變하는 현대인의 가치 체계에 수용될 수 있도록, 즉 죽음을 진지하게 수용하여 삶을 보다 건강하게 영위할 수 있는 喪服禮論을 적용시킨 喪服의 變用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 구체적인 절차 및 복식은 다음 考로 미룬다.

### 【참 고 문 헌】

- 1) A. V. Gennep (全京秀譯), 通過儀禮, 乙之文化社, 1985, p.29.
- 2) A. V. Gennep (全京秀譯), 同書, p.220.
- 3) E. Koebler Ross, On death and dying, MacMillan Publishing Co., 1969, p.38-137.
- 4) 喪禮備要, 上, 初終.
- 5) 四禮便覽, 卷之三, 喪一, 初終, 三面.
- 6) 儀禮注疏, 卷第三十五, 死喪禮第十二, 408面.
- 7) 四禮便覽, 卷之三, 喪一, 初終, 五面.
- 8) 7)과 同書, 六面.
- 9) 禮記注疏, 卷第四十四, 喪大記第二十二, 764面.
- 10) 喪禮備要, 小斂.
- 11) 禮記注疏, 卷第四十五, 喪服大記二十二, 779面.
- 12) 四禮便覽, 卷之三, 喪一, 大斂, 二十八面.
- 13) 禮記注疏, 喪大記二十二, 763面.
- 14) 國朝五禮儀, 卷七, 凶禮, 國恤, 二四六面.
- 15) 14)와 同書, 二四七面.
- 16) 喪禮備要上, 小斂之具
- 17) 家禮證解, 卷之二, 喪禮六, 小斂
- 18) 四禮便覽, 卷之三, 喪三, 小斂, 二十三面.
- 19) A. V. Gennep, 同書, p.p.256-258.
- 20) Lily Pincus(李仁福譯), 죽은이와 남은이를 위하여, 고향서원, p.128.
- 21) 章京明, 先秦喪服制度考, 商務印書館, p.13
- 22) 禮記注疏, 卷第六, 檀弓上, 第三, 113面.
- 23) 論語新解(金鐘武譯), 先進, p.p.224-227.
- 24) A. V. Gennep(全京秀譯), 同書, p.p.231-235.
- 25) 禮記注疏, 卷之三十一, 雜記下第二十一, 738面.
- 26) 25)와 同書, 740面.
- 27) 四禮便覽, 卷之六, 大祥, 三十, 三十一面.
- 28) 27)과 同書, 禫祭, 三十四, 三十五面.